

고용형태별 근로환경 차이의 영역별 특성

The disparity profile of working conditions by the type of employment according to the economic sectors and occupations

이 경 용*

Kyung-Yong Rhee*

1. 배 경

작업장에 존재하는 많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작업활동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전략은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데 노동력 활용의 영역에서도 유연화 전략을 통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실현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차이를 크게 대별하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로 구별되는데, 이러한 고용형태의 차이는 작업현장에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이 가장 높아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33%에 이르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19%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도 각각 16.5%와 16%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가 4%로 가장 낮고, 룩셈부르크는 5.3% 그리고 영국이 6% 등이다. 유럽연합 25개국의 비정규직 비율의 평균은 15%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유럽연합을 포함하여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주나 직무재설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도 역시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임시 고용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24개의 연구들 중에서 14개의 연구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잘 나타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들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별 차이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7개 중에서 5개 연구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Quinlan, et. al, 2000).

고용형태의 차별성은 고용안전성이나 불확실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경우 일에 대한 통제 능력이 개인적 수준에서나 집단적 수준에서 정규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작업조건이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등에 있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정규직에 비하여 사회적 보호나 차별대우 등으로 인하여 보호장치도 열악한 실정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취약성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Rodgers and Rodgers, 1989).

유럽연합 회원국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Benach et. al, 2002) 세 가지 형태의 건강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은 실업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실업상태는 높은 사망률과 이환율 그리고 해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 불안정한 직업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아울러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조건 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해위험한 일에 더 많이 노출된다 그리고 유연화 전략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양한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같은 표준적인 고용형태에 비하여 불건강 영향이 크다. Dooley 등(1996)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형태가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경로 중에서도 직무불안정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환경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의 차이는 업종이나 직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에 대한 통제력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서로 다른 고용형태로 보고, 작업장의 다

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는 물리적 인자와 화학적 인자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 이외의 인간공학적 인자와 심리사회적 인자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의 차이는 경제 영역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업종과 직종별로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환경의 차이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6년도에 시행한 취업자근로환경 조사 자료이다(Park, 2006). 이 자료는 2005년도 인구센서스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행정구역단위와 조사구의 특성을 기초로 한 다단계층화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해 가구를 선정하고, 추출된 가구에서 한명의 취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6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근로환경 변수와 고용형태 그리고 업종과 직종 변수이다. 근로환경 변수의 경우 본 연구의 종속변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근로환경에 포함시킨 내용은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시간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다만 심리사회적 요인에 해당되는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 변수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한 8개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유해위험요인에 포함된 항목들은 국소진동, 전신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유기용제, 화학물질 피부접촉, 방사선, 타인의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사람운반작업, 중량물운반작업, 서거나 걷는 동작, 손과 팔의 반복동작 등이었다. 설문지에는 이러한 요인에 근무중 어느 정도 노출되는지를 질문하여 근무시간 내내, 거의 모든 근무시간, 근무시간 3/4, 근무시간 1/2, 근무시간 1/4, 거의 안됨, 절대노출안됨 등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근무시간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정도와 주당 평균근로시간을 곱하여 주당 노출근로시간을 요인별로 산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에 이용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업무자율성 관련 설문
 - 일하실 때 다음 사항을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고르거나 다르게 바꿀 수 있습니까?
 - (가) 일의 순서: 예/아니오
 - (나) 작업 방법: 예/아니오
 - (다) 작업 속도: 예/아니오
 - 다음 문장들에 대해 선생님의 일자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답을 찾아주세요(5점 척도: 거의 항상, 매우 자주, 빈번히, 가끔, 전혀 없음)
 - (가) 같이 일할 사람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이 반영된다.
 - (나) 원할 때 쉴 수 있다.
 - (다) 휴가를 언제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 업무부담 관련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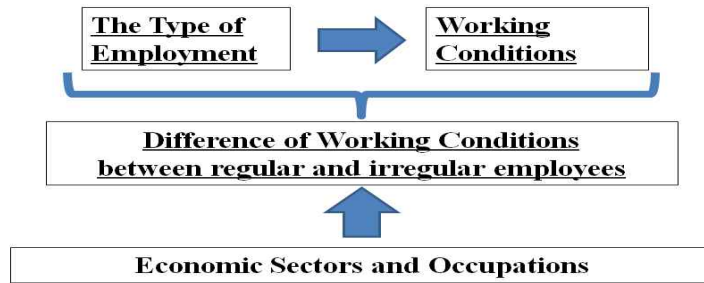
- 다음 문장들에 대해 선생님의 일자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답을 찾아주십시오(5점 척도: 거의 항상, 매우 자주, 빈번히, 가끔, 전혀 없음)

(가) 머리를 많이 사용하거나 머리가 아픈(정신적인 부담이 많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 화가 나도 감정을 숨겨야 하거나 항상 웃으면서 해야 하는 (감정적인 부담이 많은)일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는 수준은 업종과 직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모델을 설정하지 않고,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의 차이를 기술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다만, 이러한 차별성이 영역별로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특정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고용형태별 근로환경의 차이가 영역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근로환경이 영역별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다른 영향 요인은 통제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4. 연구결과

작업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 중에서 취업자 근로환경조사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18가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손과 팔의 반복 동작에 노출되는 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 주당 평균 노출시간은 26.12시간이었다. 두 번째는 서거나 걷는 동작에 노출되는 경우로서 주당 평균 노출시간은 21.35시간이었다. 세 번째는 통증유발자세에 노출되는 근로시간으로 주당 평균 20.89시간이었다. 반면 노출시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감염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시간으로 주당 평균

0.60시간이었으며, 방사선에 노출되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0.82시간이었다. 심리사회적 요인인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 노출 정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각각 2.00, 2.90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기준 변수에 해당되는 고용형태의 범주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구성을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전체의 76.3%인 5,414명이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23.7%인 1,681명이었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농림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81.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어업에서 81.3%, 가사서비스업에서 80.0%, 건설업에서 45.2%, 사업서비스업에서 34.5%, 도매 및 소매업에서 31.5%, 광업에서 29.4%,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28.4%, 금융 및 보험업에서 26.2%,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24.8% 등으로 10개 업종에서 평균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낮은 업종은 국제 및 외국기관의 경우 0%,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8.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1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에서 11.3% 등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비정규직 비율 분포를 보면, 농업 임업 어업 숙련 근로자에서 가장 높은 66.1%였으며, 판매종사자의 경우 46.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기능원 1c 관련기능조사자의 경우에도 40.7%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반면 사무종사자와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직종에서 각각 10.7%, 11.1%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근로시간의 분포를 보면 전신진동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는 주당 평균 4.10시간,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당 평균 5.68시간으로 비정규직에서 더 긴 노출시간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소진동에 대한 주당 평균 노출시간은 정규직의 경우 2.14시간, 비정규직의 경우 2.83시간으로 비정규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의 경우에도 정규직은 6.95시간, 비정규직은 8.98시간으로 비정규직에서 노출시간이 더 많았다. 고온과 저온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긴 노출시간을 보였으며, 분진과 유기용제의 경우에도 역시 비정규직에서 더 많은 노출시간을 보였다. 화학물질 피부접촉과 방사선 그리고 사람운반 작업 등에 대한 주당 평균 노출시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타인의 담배연기, 감염물질, 통증유발자세, 중량물 운반작업, 서거나 걷는 동작, 손과 팔의 반복동작 등에서도 모두 비정규직 노출시간이 정규직 노출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길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 정도는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출 시간 비(ratio)가 업종별로 그리고 직종별로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 비가 1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시간 동안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1보다 적으면 정규직 근로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을 초과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업종별 직종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주당 평균 노출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ratio)를 산출하여 업종별 19개 범주의 분포를 보면, 전신진동의 경우 이 비(ratio)의 평균값은 1.49였으며, 국소진동은 1.99, 소음은 2.06, 고온은 2.16, 저온은 5.65, 분진은 1.99, 유기용제는 4.45, 화학물질 피부접촉은 1.95, 방사선은 3.05, 타인의 담배연기는 1.34, 감염물질은 11.37, 통증유발자세는 1.32, 사람운반작업은 2.39, 중량물운반작업은 1.85, 서거나 걷는 동작은 1.97, 손과 팔의 반복동작은 1.42 등으로 나타나 감염물질에 노출되는 시간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ratio)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유발자세의 비(ratio)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은 각각 0.97, 0.99 등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노출정도의 비(ratio)가 1에 가까웠다.

전신진동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출시간비는 업종별 평균 1.49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5.71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이 0.98로 가장 적었다. 국소진동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서 가장 컸으며, 제조업에서 0.96으로 가장 적었다. 소음의 경우 광업에서 9.13으로 가장 컸고, 제조업에서 0.90으로 가장 적었다. 고온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6.73으로 가장 컸고, 광업에서 0.87로 가장 적었다. 저온의 경우 광업에서 54.61로 가장 컸으며, 공공수리및 개인서비스업이 1.03으로 가장 적었다. 분진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8.69로 가장 컸으며, 부동산임대업에서 1.02로 가장 적었다. 유기용제의 경우 광업이 18.49로 가장 컸고, 제조업이 1.02로 가장 적었다. 화학물질 피부접촉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사업에서 4.13으로 가장 컸고,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에서 각각 0.94, 1.06으로 가장 적었다. 방사선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 13.98로 가장 컸으며, 제조업에서 0.82로 가장 적었다. 타인 담배연기의 경우 도소매업에서 2.18로 가장 컸고, 제조업에서 0.99로 가장 적었다. 감염물질의 경우 숙박음식업에서 120.82로 가장 컸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 0.97로 가장 적었다. 통증유발자세의 경우 광업에서 2.28로 가장 컸으며, 통신업에서 1.02로 가장 적었다. 사람운반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이 10.15로 가장 컸고, 전기가스수도사업에서 1.04로 가장 적었다. 중량물운반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에서 5.12로 가장 컸고, 제조업에서 1.10으로 가장 적었다. 서거나 걷는 동작의 경우 광업에서 11.65로 가장 컸으며, 교육서비스업에서 1.00으로 가장 적었다. 반복동작의 경우 광업에서 4.18로 가장 컸으며, 농업 및 임업에서 0.98로 가장 적었다. 업무자율성의 경우 광업에서 1.34로 가장 컸으며,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0.99로 가장 적었다. 업무부담의 경우 전기가스수도에서 1.16으로 가장 컸으며, 숙박음식업, 운수업, 통신업에서 1.00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평균값의 비(ratio) 이외에 업종별 비(ratio)의 분포 변동폭이 요인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변이계수가 낮을 경우 변동폭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변이계수가 클수록 변동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신진동의 업종별 변이계수는 0.92, 국소진동은 1.13, 소음은 0.97, 고온은 0.69, 저온은 2.22, 분진은 1.03, 유기용제는 1.78, 화학물질 피부접촉은 0.78, 방사선은 1.21, 타인의 담배연기는 0.44, 감염물질은 2.62, 통증유발자세는 0.42, 사람운반작업은 1.08, 중량물운반작업은 0.69, 서거나 걷는 동작은 1.23, 손과 팔의 반복동작은 0.57 그리고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은 각각 0.14, 0.11 등이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업종별 정규직 노출시간 대비 비정규직 노출시간의 비(ratio)의 분포는 5점 척도로 측정된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에서 가장 적어서 표준편차가 평균의 14%와 11%에 불과하였다. 반면 감염물질과 저온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이계수를 보여 표준편차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에 비하여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ratio)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결과 전신진동의 경우 군인을 제외한 9개 범주에서 산출된 비(ratio)의 평균은 1.07, 국소진동의 경우 1.97, 소음 1.27, 고온 1.38, 저온 1.38, 분진 1.25, 유기용제 1.13, 화학물질 피부접촉 1.39, 방사선 1.17, 타인의 담배연기 1.68, 감염물질 2.05, 통증유발자세 1.22, 사람운반작업 3.35, 중량물운반작업 1.54, 서거나 걷는 동작 1.14, 손과 팔의 반복동작 1.10, 업무자율성 1.01, 업무부담 1.08 등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출시간 대비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ratio)의 직종별 평균값이 가장 높은 요인은 사람운반작업으로 나타났으며, 감염물질의 경우에도 2배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가장 낮은 값은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이었으며, 전신진동과 손과 팔의 반복동작의 경우에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신진동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출시간비는 직종별 평균 1.07 단순노무자의 경우 1.66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고위관리자와 장치기계조작원에서 각각 1.02, 0.98로 가장 적었다. 국소진동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7.30으로 가장 컸고, 단순노무자에서 0.88로 가장 적었다. 소음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1.98로 가장 컸고, 기능원에서 0.97로 가장 적었다. 고온의 경우 사무종사자에서 2.38로 가장 컸고, 서비스종사자에서 0.90으로 가장 적었다. 저온의 경우 서비스종사자에서 2.00으로 가장 컸으며, 장치기계조작원이 0.96으로 가장 적었다. 분진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3.34로 가장 컸으며, 사무종사자와 단순노무자에서 0.99로 가장 적었다. 유기용제의 경우 사무종사자가 3.77로 가장 컸고, 단순노무자에서 1.11로 가장 적었다. 화학물질 피부접촉의 경우 전문가에서 3.27로 가장 컸고, 사무종사자에서 0.97로 가장 적었다. 방사선의 경우 단순노무자에서 2.56으로 가장 컸으며, 판매종사자에서 0.89로 가장 적었다. 타인 담배연기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자에서 3.37로 가장 컸고, 기능원에서 1.00으로 차이가 없었다. 감염물질의 경우 판매종사자에서 7.60으로 가장 컸으며, 기능원에서 1.00으로 차이가 없었다. 통증유발자세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2.01로 가장 컸으며, 장치기계조작원에서 1.02로 가장 적었다. 사람운반의 경우 고위관리자가 13.21로 가장 컸고, 장치기계조작원에서 1.04로 가장 적었다. 중량물운반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2.69로 가장 컸고, 서비스종사자에서 1.01로 가장 적었다. 서거나 걷는 동작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1.85로 가장 컸으며, 판매종사자에서 0.99로 가장 적었다. 반복동작의 경우 고위관리자에서 1.99로 가장 컸으며, 장치기계조작원에서 1.01로 가장 적었다. 업무자율성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자에서 1.20으로 가장 컸으며, 판매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에서 모두 1.02로 가장 적었다. 업무부담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자에서 1.64로 가장 컸으며, 단순노무자에서 0.98로 가장 적었다.

직종 9개 범주에 분포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ratio)의 변동 폭을 나타내는 직종별 변이계수를 보면 전신진동 0.34, 국소진동 1.12, 소음 0.41, 고온 0.31, 저

은 0.27, 분진 0.69, 유기용제 0.97, 화학물질 피부접촉 0.59, 방사선 0.54, 타인의 담배연기 0.45, 감염물질 1.21, 통증유발자세 0.29, 사람운반작업 1.39, 중량물 운반작업 0.39, 서거나 걷는 동작 0.31, 손과 팔의 반복동작 0.31, 업무자율성 0.08, 업무부담 0.20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이계수를 보면 업종별 변이계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ratio)의 직종별 분포의 변이계수가 가장 큰 경우는 사람운반작업이었으며 감염물질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이 가장 낮았고, 저온, 통증유발자세 등이 각각 0.27, 0.29 등으로 표준편차가 평균의 30% 미만으로 나타나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 노출의 영역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인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에서 검증되었으나, 화학물질 피부접촉과 방사선 그리고 사람운반 작업 등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사회적 요인인 업무자율성과 업무부담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가 업종과 직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요인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는 점은 직무의 특성이나 노무관리 등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업종과 직종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출 차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이 업종과 직종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업종과 직종에 따라 고용형태별로 분장업무와 직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업종별 직종별 고용형태의 분포가 다르고 업종별 유해위험요인의 발생기전이 다르며, 직종별로 직무내용과 직무수행 방식이 고용형태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이 고용형태별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업종과 직종 범주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향후 고용형태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의 차이를 가져오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의 경우 대부분의 유해위험요인 노출시간은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다만, 감염물질, 업무자율성, 업무부담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고용형태별 유해위험요인 노출 시간의 차이가 업종과 직종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영역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출시간비의 변동수준의 경우 감염물질, 저온, 유기용제 등에 대한 노출시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출시간 비가 업종별로 크게 다른 분포를 보이지만, 업무부담, 업무자율성, 통증유발자세, 타인의 담배연기 등은 변이가 적었다. 사람운반, 감염물질, 국소진동 등은 직종별 변이가 상대적으로 컸으나, 업무자율성, 업무부담, 저온, 통증유발자세 등은 직종별 변이가 적게 나타났다.

5. 참고 문헌

- [1] Park J. First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Eu countires. *Industrial Health* 2009;47:50-54.
- [2] Quinlan M, Mayhew C, Bohle P. Contingent work: health and safety perspectives or the global expansion of precarious employment, work disorganisation and occupational health: a review of recent research. Paper presented to the EU Research Workshop, Dublin 22-23 May 2000
- [3] Rodgers G, Rodgers J.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Brussel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Free University, 1989
- [4] Benach J, Gimeno D, Benavides FG. Types of employment and health. Dubli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2002
- [5] Dooley D, Fielding J, Levi L. Health and unemployment. *Annu Rev Public Health*. 1996;17:449 - 465.